

맥주·막걸리 가격 오르고 국산차 개소세 30만원 낮아진다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율 1 당 맥주 30.5원·탁주 1.5원 ↑
 차 판매가 아닌 원가에 세금 부과
 7월 제조장 반출 제품부터 적용

올해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이 각각 1 당 30.5원, 1.5원 오르게 되며,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평균 20만~3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함께 비회원제에도 개소세가 붙게 돼 이용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에 1 당 885.7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탁주)는 1 당 44.4원이 과세된다. 이러면 맥주는 전년보다 30.5원, 막걸리는 1.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등 마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문화지원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단일간이세율 20%, \$1,000이하 → 폐지 \$1,000 초과, 20~55% → 모든 물품 15~47%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미납국세 열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허용, 열람 장소 전국 세무서로 확대
- 탁주·맥주 세율 변경 맥주 10당 885.7원(30.5원), 탁주 10당 44.4원(1.5원)
-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 교육기관에 기증 시 세액공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육류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회원제 골프장 부과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는 종량제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증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호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세도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개편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제조

장 반출 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세금만 비교하면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국산차 포함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고 실장은 "자동차를 비롯 국산 제조품은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에도 개소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전환경자동차법상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물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

에 개소세가 부과됐는데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객 1인당 개소세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돼 골프장 대중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도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체납 열람

강화지역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편이다.

또 경기도 연천·강화·옹진군 지역에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내놨다.

◆ 전세사기 방지...주인 체납액 열람 가능

우선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빌라왕' 전세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입주하는 개시일까지다.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열람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 빌라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호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우선변제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상가가 1000만원, 주택이 2500만원이다. 적은 금액도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점을 감안해서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거의 모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며 "열람 가능한 소액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대상 주택에 기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이며, 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이다.

◆ 저가·농어촌주택, 종부세·양도세 특례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아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인구 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다. 현재의 옹진, 연천에서 추가된 것.

한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준 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위기의 해운업계, 선대 다각화로 출구 모색

운임지수 지속적 하락, 재고 증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해운업계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임지수의 지속적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요즘 해운업계 분위기는 최근 2년 사이의 해운업계 호황 시절과 사뭇 대조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1031.42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 최고치인 5109.60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이는 일 년 사이 79.8% 감소한 수치로, 업계에선 SCFI 1000선도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국의 해운 시장 분석 전문가 MSI는 최근 발간한 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컨테이너선 수요를 2억1820만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컨테이너선 공급은 7.0% 늘어난 2760만TEU에 이를 것으로 보여,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26주 연속 하락한 SCFI지수는 연말 특수로 0.04% 소폭 반등했지만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를 보이는 중이다. 수익성 지표인 운임이 하락하자 증권가에서도 국내 대표 선사인 'HMM'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47%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MM 컨테이너선

/HMM

이에 해운사들은 각자의 강점은 유지하되 선대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MM의 경우는 컨테이너선에만 치중되어있던 운임 수익을 벌크선으로 다양화해 컨테이너선 운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를 제외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매

출만 93.7%였다. 결국 컨테이너선 운임가에 따라 기업의 실적 폭이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컨테이너선과 달리 유연탄·철광석 등의 원자재를 싣는 벌크선은 장기 계약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MM은 지난해 7월 중장기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컨테이너와 벌크사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벌크선의 사업 규모를 29척에서 2026년까지 55척으로 90%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대표 벌크선사인 하림그룹 해운 계열사 '팬오션'의 경우는 올해부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다. 팬오션은 벌크선 경쟁력을 유지하되 의존도를 낮추고 LNG선을 확보해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노리고 있다.

팬오션은 지난 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17만4000CBM(큐빅미터)급 LNG운반선 명명식을 개최하고 'NEW APEX(뉴에이펙스)'호 인도받은 바 있다. 오는 5월엔 글로벌 석유 메이저기업인 헬과 맺은 LNG선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대형 LNG선 6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